	보 도 자 료			시민이 강생보 * 한
인천광역시	배포일자		월 27일(수) 3매	세계 초일킬 도시 인천
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과	담당자 • 전통시장지원팀장 김미혜 ☎440-4221 • 담당자 이근왕 ☎440-4222			
사진(이미지)	□ 없음 ■ 있음		참고자료	■ 없음 □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유정복 시장, 현대시장 찾아 화재복구 상황과 추석 물가 살펴

- 화재 복구 현장방문, 명절기념 상인 격려 및 물가안정캠페인 실시 -

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9월 27일(수) 동구 현대시장을 찾아 화재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추석 명절 물가동향을 살폈다.

현대시장은 지난 3월 화재 피해 이후 복구가 진행 중인데, 유 시장은 화재 피해가 가장 컸던 아케이드 구간에서 전체적인 복구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각 점포를 방문해 명절 물가를 살피며 상인들과 소통했다. 또 한 명절 기간 물가안정에 동참을 당부하는 홍보 행사도 함께 펼쳤다.

인천시는 현대시장 화재 발생 이후 재해구호기금 및 시설복구 재원을 지원했고, 동구청은 각종 성금·기부금으로 피해 상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시설물을 복구해 왔다. 지난 4월까지 잔해 수습 및 폐기물 처리, 6월부터 9월 중 아케이드 해체 완료에 이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아케이드 복구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.

유정복 시장은 "지역을 대표하는 현대시장이 불의의 화재 피해를 겪게 되어 매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"며 "그동안 동구청에서

피해 조사 및 보상 과정, 시설물 복구를 진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셨고, 무엇보다 화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충격 속에서 공무원들을 믿고 복구 작업에 협조해 주신 상인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 의 마음을 전한다"고 말했다.

이어 "우리 시는 현대시장이 화재의 아픔을 딛고 지역의 명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
한편 인천시는 현대시장 화재를 계기로 전통시장 화재 안전을 위한 여러 후속 조치를 해 왔다. 특히 화재보험 가입을 확대코자 화재공제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올해 7월 처음 시작했고, 앞으로도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화재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'인천미디어'→ '포토인천'→'포토시정'(https://tv.incheon.go.kr)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